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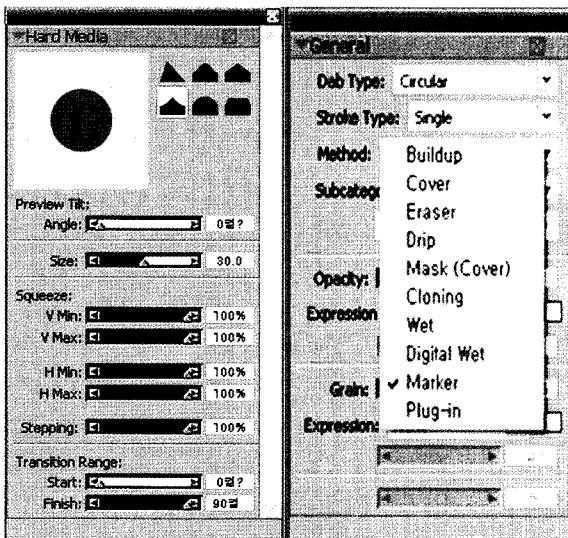
# Painter로 구현하는



페인터11 버전이 최근 출시되었다. 페인터는 수채화, 유화 등 예술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동화적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어 디자인 및 사진 시장에서 새로운 조류로 각광받고 있다. 페인터11이 만들어 낸 것은 전통 방식에 비해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독특한 브러시나 작업도구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캔버스와 상호 작용시킬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페인터11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기고 김세현 (주)파이널이펙트 대표

페인터11에서는 작업용 미디어와 색상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컬러(Color)와 믹서(Mixer) 팔레트가 새롭게 디자인 되었다. 또한 40여 개의 내추럴 미디어(Natural-Media)의 브러시가 추가되었으며, 이들은 그림과 스케치에 최적화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아크릴, 블렌더, 분필, 색연필, 지우개, 파스텔, 연필, 펜, 수채화물감 등으로 브러시 항목에 추가되었으며, 일부는 새롭게 만들어진 Marker에 포함되어 있다. 이 팔레트로 자신만의 hard media variants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팔레트는 미리 보기 창과 몇 가지 조절 기능의 스크롤 바가 있다. 사용자는 이 팔레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타일에 맞도록 dab profiles, sizes, transition range, stroke width, tilt angle 등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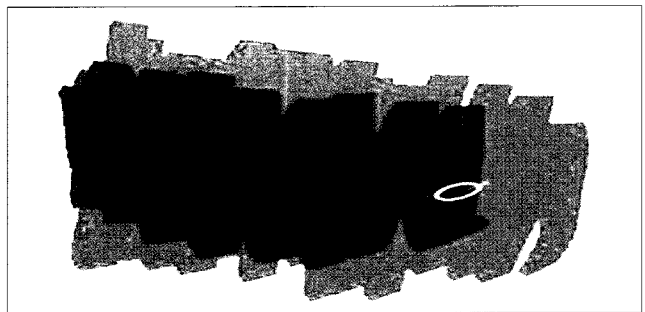
Hard Media 팔레트



페인터 11 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markers를 선보였다. 페인터의 다른 브러시나 media와 마찬가지로 markers도 타블렛의 경사각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을 그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marker를 사용해 stroke를 하는 동안 색상 혼합 등 media와 canvas의 상호 작용의 정도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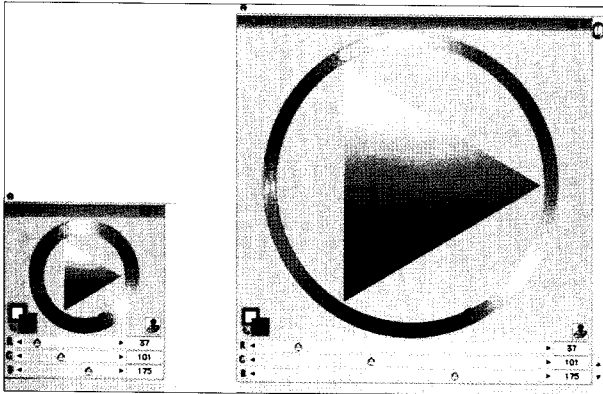
새로 추가된 marker variants는 실제 marker와 같이 색상을 덧칠한다. 처음 채색 후 덧칠을 하게 되면 칠한 색상이 쌓이게 되고 계속 칠하면 어두워지게 된다.

Marker를 이용하여 색상을 덧칠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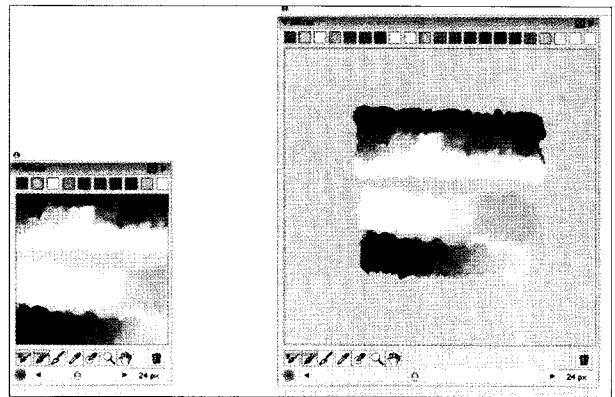


또한 페인터11에서 컬러팔레트는 색상 조절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다시 디자인되었다. 이전 버전에서 따로 있던 컬러정보팔레트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color wheel 과 color 정보 slider를 같이 볼 수 있다. 또 color wheel에서 정확한 색상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보드의 화살 키를 이용하여 미세한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팔레트 자체도 최대 800 픽셀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컬러 팔레트(왼쪽); 새로운 컬러 팔레트(오른쪽)



이전 버전 믹서 팔레트(왼쪽); 새로운 믹서 팔레트(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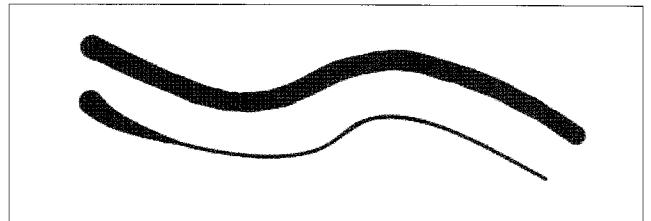
믹서팔레트를 1600픽셀까지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색상을 섞을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선택 색상도 많아져 색상을 만들고 선택하기가 용이해 졌다.

페인터11에서 펜 타블렛의 속도 감응 조절능력이 개선되었다. 펜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잉크가 적게 공급되면서 선이 가늘어 지고 반대로 느리게 하면 잉크가 많이 공급되어 선이 굵어지게 된다.

### 기타 페인터 11의 특징

- Color Management Interface가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사용자는 새 파일을 만들거나 페인터의 파일, 혹은 다른 파일의 형태를 열 때 color profiles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간 파일을 이동하거나 고객과 파일을 주고 받을 때 정확한 색상 값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졌다.
- selection tools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되었으며 선택 기능도 향상되었다. marquee tools은 예민하고 정확한 선택을 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마술 붓은 지정된 영역 내에서 더욱 개선된 능력을 보여 준다.
-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선택을 할 경우를 위해 다각형 선택 툴을 추가하였다. Lasso tool을 사용할 때 다각형 선택 툴은 안쪽과 바깥 쪽을 switch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욱 간결하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변형 모드를 집중화된 툴의 형태로 모아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페인터의 변형 툴은 속성 바에서 버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손쉽게 Move, Scale, Rotate, Skew, Distort, Perspective Distortion mode로 바꾸어 가며 작업할 수 있다. Ⓞ

펜 속도에 따른 잉크 량의 변화



펜을 기울였을 때의 stroke

